시 론

마음자리 바로잡기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아파트가 붕괴되듯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제왕이나 되는듯 거드름 빼던 재벌기업들마저 금이 간 빌딩처럼 뒤뚱대고 있다. 더구나 종금사 중에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은행들까지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었으니, 무슨 말을 더 하랴.

국민 생존권 위기상황

위기에 몰린 것은 서민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1만달러로 몇 년만 있으면 선진국 대열에 낀다는 말에 솔깃해 있던 서민들은, 환율 급등으로 하루아침에 5000달러 소득의 국민으로 내려앉은 자기위상을 인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소속돼 있는 기업에 감원 선풍이나 불지 않을까. 업체가 도산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살자니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통 시큰둥할 수 밖에 없다.

이 원 섭
〈시인〉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보와 기아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탓하는 말도 있다.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지나친 임금상승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는 말도 있다. 국민의 과소비, 특히 부유층의 낭비를 꼬집는 말도 있다. 다 구구절절 옳은 소리들이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에 의해 갖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워낙 현실에서 먼 나같은 늙은이에게는 모두가 그럴싸하게 들릴 뿐이다. IMF와 협상해 불리한 조항은 다 뜯어고치겠다니 그렇게 되기를 빌 뿐이다. 1년반 안에 IMF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니 그렇게 되기를 빌 뿐이다. 임기 중에 경제를 세계 5위에 올려놓겠다니 그렇게 되기를 빌 뿐이다.

그러나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미심쩍은 생각이 남아, 전적으로 그들에게 동조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의 어리석음 탓인지는 몰라도 그들 모두가 겉만을 보고 지엽적인 것에 매여 근본을 망각하고 있는듯 여겨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의 경제 위기를 경제의 범주에서만 다루고, 설사 시야를 넓힌대도 정치·사회나 기술 같은 것과 관련시켜 생각하는데 그침이 그것이다.

경제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잘 살기 위해 부를 획득하려는 행위다. 그러므로 경제의 밑바닥에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깔려 있다. 이 욕망이 경제를 성립시키는 근본적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것에 비하면 자본이니 자원이니 하는 것마저도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의 탱크'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도덕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그때에는 탱크와 탱크가 정면으로 충돌해 서로 나둥그라지는 것은 고사하고 법의 전당과 도덕의 성화대마저 깔아뭉개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상상의 차원을 넘어 오늘의 현실 바로 그것이라면 이를 도외시한 어떤 극복 대책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욕망이란 어떤 것인가. 그 속성을 잘 나타내는 것에 인도의 어느 임금과 거지의 이야기가 있다.

한 거지가 왕궁에 나타나 임금에게 보시해 줄 것을 청하고 자기의 바리때를 꽉 채워 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조그만 바리때를 채울 것이 내게 없을 것 같으냐."

임금은 비웃고 신하에게 바리때에 찰만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무엇이건 바리때에 닿기가 무섭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결국 임금은 무일푼의 거지가 되고 말았다. 무슨 바리때가 이러냐고 묻자, 거지가 대답했다.

정치권 대오각성해야

"이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바리때입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욕망의 정체다. 그런데도 우리는 민주화·세계화라는 이름 밑에 욕망을 100% 풀어 주었다. 절제하지 않은 욕망이 오늘의 총체적 파국을 가져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욕망의 억제와 조절이다. 이런 노력없이 '잘살아 보세' 하며 뛰어서 2만불·3만불의 경제를 이룩해낸다 해도 부유한 '짐승들의 공화국'밖에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리 바로잡기'에 불교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열리마당

조계종지도자회의 '민족문화수호와 전법'

조계종이 9일과 10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민족문화 수호와 전법을 위한 지도자회의'는 3백여 중진스님들이 민족문화수호와 전법이라는 주제를 두고 처음으로 벌인 토론의 장이었다. 참가한 스님들이 '전법도생과 불교중흥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주제에 대해 15개 조로 나눠 벌인 분임토론의 총괄내용과 6명의 스님이 발표한 대표토론의 요지 그리고 '문명사적 전환기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 요지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조계종지도자회의 주제별 분임토의 장면.

선-교 조화 교리체계화

호진〈동국대 교수〉

조계종은 선과 교를 아우르는 통불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조계종이란 종파의 이름은 선불교의 색채가 강하지만 실제 종지는 그렇지 않다.

1941년에 한암스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조계종이라는 이름의 종단이 탄생된 것일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둘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교리상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작업이 미래의 불교를 바르게 세워가는 초석임을 강조하고 싶다.

승풍진작 승단의 생명

도법〈선우도량 상임대표〉

수행과 승풍의 문제는 승단 존재의 이유이며 생명이다.

무엇보다 현재 승가는 수행과 승풍 진작에 대한 문제의식이 빈곤하다. 우리 종단은 이 문제를 얼마나 종책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불교사상에 입각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확립해야 하고 청빈한 생활이 수행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단은 정치와 행정을 통해 수행과 승풍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수행-전법 둘아닌 하나

현각〈명륜복지관 관장〉

종단이 전법을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하는데서 전법은 시작되어야 한다. 승가는 개인 수행의 완성과 전법도생이라는 두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두길이 아니라 한길이다.

전법의 대상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이다. 우리 승가는 분업화되고 기능화된 사회를 향해 전법의 길을 어떻게 닦아갈 것인지를 수행하는 마음으로 고민해야 한다.

불교문화 지역별 특화

법등〈중앙종회 부의장〉

신앙적 의미와 성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설명으로 일관된 안내판이 전법의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찰 안내 팜플렛을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담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찰이 관광객들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불교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며 불교문화 상품을 개발하는데도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보박물관 기능 확대

범하〈통도사 박물관장〉

성보문화재의 관리 보존을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사찰의 불교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박물관을 법당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불교적인 기능을 갖추는데는 관심이 적은게 현실이다. 박물관이 자연스런 포교의 현장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입장에서 건립해야 할 것이다. 사찰 박물관은 볼 거리를 제공하면서 불교문화와 신앙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전통문화의 가치 홍보

현고〈송광사 주지〉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서구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류의 발달이 물질문명의 발달에서 기인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인간 의지의 확산에 의한 것임을 자각하는데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갖는 가치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의 민족문화 정책은 바로 내면적인 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분임토의 내용

'승가의 위의확립과 승풍진작 방안'에 대한 주제 토론에서 스님들은 교육원의 교육체계에 계율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종단협의회를 통해 타종단 스님들의 위의 확립문제에도 공통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언론에 의한 승가 위의훼손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 문제의 지적도 있었으며 사미 사미니의 의제와 신분상의 차이를 두고 호칭은 스님이 아닌 사미 사미니로 해야 한다 등 승가 현실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개진하기도 했다.

'전법도생과 불교중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도교육과 조직화를 통한 포교역량을 극대화 하고 신도교육을 위한 통일된 교재발간과 신도 기본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 △도시 농촌 등 특성에 맞는 포교활동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며 사회복지등 특수포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종단의 사회지도력 제고방안'과 관련 스님들은 스님들의 역사적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승·재가 교육강화…불자상 정립
성보보존 국가법령 제개정 절실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 실천적 방안으로 칠석, 백중, 동지등 불교속에 용해되어 있는 문화를 활용해 지역포교를 활성화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민족문화 수호와 창달을 위한 조계종의 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불교의식의 종단적 통일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스님들에게 불교문화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성보의 훼손및 도난을 막기위해 국가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처벌규정 강화, 성보도난 대책반의 구성, 본사단위의 성보박물관 건립, 불교관련 유무형 문화재에 관한 발굴 조사 방안등을 총무원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각지역 승가대에 문화재관리학과 신설등을 통해 성보에 대한 관리와 인식을 고양시키자는 의견도 관심을 끌었다.

'정부 민족문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문화부문 예산을 2%이상 책정해야 하고 현 문체부를 순수한 문화적 기능을 담당시키기 위해 문화부로 독립 개편해야 하며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국가법령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황룡사 미륵사 청주 흥복사등 사지 복원은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고 추진해야 한다. △폐사지 복원및 보호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

"사이버 공간에도 절 지읍시다"

이어령교수 강연 요지

다가오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 말하는 것은 이제 국경이 없어지고 문화적 동질성 속에서 세계가 움직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통신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은 이미 국가간의 국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국경없는 통신의 시대에 불교는 통신의 순기능을 충분히 이용하여 거룩한 불교정신을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스님들께 사이버 공간에 절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불교는 사이버 공간에 경전도 올리고 불교 예술과 사상도 올려야 합니다. 세계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글로벌 포교의 방법을 찾지 않으면 세계를 향한 포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교의 원융회통 정신은 그대로가 글로벌한 불교사상 아닙니까. 불교의 세계관이야말로 사이버 공간의 무애자재한 정신인데 그런 정신적 토대를 현실화 시키는 작업을 불교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국경이 허물어 진 것은 환경과 통신만이 아닙니다. 경제도 인권도 모두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과거 국경이 있는 세계의 풍속에 의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불교야말로 그 독특한 순환의 원리(윤회)로 세계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열쇠를 불교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미래 사회의 향도자도서 혹은 구원자로서의 불교적 역할이 가늠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질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합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45Cm

◎ 보급가 : ~~W300,000~~ ⇒ W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